

<쉬어가는 쪽>

두꺼비 蟾, 나루 津, 큰내 江의 한 귀퉁이 ‘봉·조·리’

최성민 / 한겨레신문 여론대체부장



‘산행’ 대신 ‘강행’이라는 말을 생각해 보자. 배 타고 강물을 따라 오르거나 강변길을 따라 걸으며 강의 생태와 그것이 인간의 삶에 주는 생명력과 강마을에 끼친 문화적 향취를 더듬어 보는 것이다. 인류의 문화를 낳은 강가는 ‘강행’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여가를 한결 풍요롭게 해 줄 것이다.

‘주5일 근무’ 시대를 맞아 ‘강행’을 새로운 여가형태로 제안하며 섬진강을 따라가 본다. 최근 인파가 몰리는 영월 동강에 비해 섬진강은 한국에서 가장 자연이 잘 살아있고 정감이 넘치는 강이다. 전남 곡성에서 압록을 거쳐 구례구역에 이르는 섬진강 중류 구간은 한국의 강변 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길로서 철도와 찾길, 물줄기 등 셋이 나란히 달리고 건너편에는 비포장 하이킹 길도 있다.

섬진강은 ‘민족의 성산’ 지리산과 임실 순창의 회문산을 거느리고, 고찰 화엄사와 쌍계사, 구례 산수유마을, 광양 매화마을 등을 얹고 있다. 섬진강은 남도 오백리(212.3km) 길, 세 개의 도(전남·북, 경남)와 열두 개의 군을 거쳐 간다. 큰 도시나 넓은 들을 지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계곡을 지나는가 하면 갑자기 특 터진 작은 들판과 들끝 산자락에 걸터 산마을을 평화롭게 물 아래에 드리운다. ‘이제는 끝인갑다’ 하면 불쭙 수줍은 듯 몸을 드러내는 산골 색시같은 강 (<섬진강을 따라가며 보라>) 이다. 강 이름은, 1385년(고려 제32대왕, 우왕 11년) 경 왜구가 강 하구를 침입하였을 때 수십 만 마리의 두꺼비가 울부짖어 왜구가 광양쪽으로 피해갔다는 전설이 있어 이때부터 두꺼비 섬(蟾) 자를 붙여 섬진강(蟾津江)이라 했다고 한다. 두꺼비 비석이 지금 하동-광양을 잇는 하동교 옆에 있다.

섬진강의 가장 아름다운 구간 곡성-구례구역 사이 산골에 새 둥지처럼 보금자리를 튼 봉조리라는 마을이 있다. 봉조리 옆 길 안쪽이나 강 건너쪽으로는 침곡리, 송정리, 봉조리, 압록리, 하한, 용정, 강 맞은편엔 호곡리, 작은범실, 두가, 탑선리 등 그림같은 산마을들이 골짜기 깊숙이 깃들여 있어 '골짜기 세상 곡성(谷城)'의 이름값을 해준다.

이 구간에는 섬진강은 물론 다른 강에서도 보기 어려운 맵시있는 나무줄 나룻배가 두 곳에 있다. 호곡리에서 봉조리쪽으로 오가는 호곡나루는 섬진강 줄나루의 시작이다. 여기서부터 그 아래 1 km 지점 (작은 범실) 에 똑같이 생긴 나무 줄나루가 있고, 거기에서 10 km 쯤 떨어진 구례 피아골 들머리 물목에 쇠배 줄나루가 한 척, 그리고 구례 각전면 사람들이 화개장터에 장보러 가는 화개줄나루가 있다. 이 섬진강 줄나룻배들 가운데 호곡나룻배와 작은 범실나룻배는 순 목재만으로 만들어 초록색깔을 칠해 자연친화의 멋을 부렸다.

이 구간에 보금자리를 틀고 사는 이들의 삶은 펍 걸쭉하다. 오래 전부터 심씨 동성마을을 이뤄온 송정마을은 알고 보니 '호녀 심청'이 태어난 마을이어서 곡성군은 3년 전부터 해마다 가을에 '심청축제'를 연다. 강 건너 맞은편 유곡마을 (구례군) 앞엔 섬진강 전 구간에서 가장 넓은 대나무밭이 있다. 이 마을 폐분교엔 '황기모야'(대표 류 숙)가 황토염색 특허를 내어 성업중이다. 그리고 가까이엔 고찰 태안사, 선암사, 화엄사, 천은사들이 있고 '산수유 꽃대궐' 구례 산동마을도 20분 거리다. 이런 삶과 문화의 향취를 찾아 '치포치포 섬진강 나들이열차'(061-360-8309)가 해마다 4월부터 11월까지 공휴일과 일요일에 압록역에 선다.

그 가운데서도 봉조리는 특별하다. 골짜기로 이뤄진 곡성에서도 가장 긴(20 km) 산골짜기에 들어있다. 봉조리에 지금 토종매화매실 수확이 한창이다. 봉조리 사람들은 주변 산에 장뇌삼과 옷나무를 기른다.(061-363-5615, 최광호씨)

봉조리 산길 곳곳에는 꿩과 멧비둘기 털이 뿔뿔이 날려있어 눈길을 끄는데, 매 두 마리가 이곳에 거의 불박이로 살면서 남긴 것이다. 먹이가 많다는 것은 자연의 풍성함을 말해주는 것이다.

곡성읍-구례구역 구간의 섬진강 물이 넘치고 맑은 것은 봉조리 등 산물을 내려주는 깊은 골짜기들이 이곳에 몰려있기 때문인데, 봉조리 사람들은 물오염을 막기 위해 '오리농법'으로 논농사를 짓는다. 이른 봄에 곡성장에서 오리새끼를 사다가 논에 풀어 놓았다가 추수때 걷어들이는 것이다. 농약이 필요없고 오리똥이 좋은 거름이 되며 자연산에 유향을 먹인 오리는 정평이 높은 '약오리'로 팔려 나가니 일석삼조라 할 수 있다.

<봉조리 농촌체험학교>

봉조리 들머리에 있는 봉조분교(폐교)를 '농촌체험학교'로 가꾸어 놓았다. 봉조리의 무공해 삶과 자연을 도시인들의 마음에 입혀주자는 취지로 지난 해부터 곡성군과 봉조리 사람들이 '농촌체험학교 추진위원회'(061-362-5214, 이강선씨)를 만들어 벌여온 일이다. 대상은 '치포치포 섬진강 나들이 열차'를 타고 오거나 승용차로 섬진강변길을



봉조리 마을은 도시인들이 무공해 삶과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농촌체험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지나는 사람들이다. 봉조분교의 교실과 관사가 손님맛이를 위해 깨끗하게 단장됐고, 운동장에는 병아리를 품은 어미닭 등 토종 가축들을 들여 놓았다. 가축과 주변 산에 사는 야생동물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도록 축사를 개방하고 모이로 불러들이는 '인간친화 들새들이기'라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운동장은 밭으로 개간해 철따라 각종 토종 농산물과 야생화가 가득하도록 한다. 운동장 한 켠에는 큰 방죽을 파서 '잠자리 방죽'을 만들고 독에는 자운영을 잔뜩 심어 놓았다. 방죽 옆에는 옛 원두막과 초가집을 특성을 살린 삼칸짜리 '원두초가'를 지어 3월 말 문을 연다. 지나는 이들이 쉬어가며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도록 제공한다.

<봉조리 가기>

서울에서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열차가 곡성역에 선다. 승용차는 서울 - 대전(경부고속도로) - 진주(대진고속도로) - 함양(88고속도로) - 남원 - 곡성으로 이어지고, 곡성읍, 구례구역, 구례산동 등지에 숙박시설이 좋다.